

## 韓國 高等教育과 女性問題

韓 明 希  
(東國大 教育學科 副教授)

여성의 高等教育은 대학교육이 지녀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가려져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理由는 教育的 차원과 女性問題的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다.

### I. 머리말

교육기회의 전면적인 확대와 남녀 평등정신의 발달, 그리고 산업사회의 발달은 한국여성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 왔다. 여성을 위한 정규교육이 1886년 시작된 후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수는 192,000명을 넘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의 약 32%를 점하게 되었다.<sup>1)</sup> 해방 후 고등교육은 그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성격이 大衆化되었고 전체적으로 괄목할 만한 質的 팽창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女性의 고등교육 기회의 양적 발전은 남성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교육기회의 문제를 논할 때 남녀별 측면에서는 별 문제 없이 발전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남녀의 기회균등은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같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이라는 커다란 교육사업을 두고 볼 때, 남·녀라는 차원은 확실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체 대학교육이 지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에 가려져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女性의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약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의 고등교육이 문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대학교육의 質과 목표, 과정 등을 포함한 문제의 차원에서이다. 대학교육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이들 여성의 교육문제는 곧 대학교육 그 자체의 문제이므로 대학교육 자체의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교육의 여성문제적 차원이다. 여성의 地位向上이라는 점에서 보면 모든 계층의 여성 가운데서 가장 혜택을 입었고 가장 높게

남성과 동등의 지위를 쟁취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관심사 중 우선 순위가 뒤로 와야 하는 문제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문제 해결의 전략이며 수단이라는 차원, 즉 변화의 촉진세력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사회에서의 여성문제로 볼 때는 가장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그 投資效果가 적다는 역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여성교육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II. 男女共學의 문제

모든 교육의 수준에서 피교육자의 구성은 생활의場이 가진 특성 그대로 남녀를 같이 구성하는 共學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학적인 경험의 이론이나 사회화의 이론, 잠재적 학습이론 중에 비추어 볼 때, 남녀공학은 남녀別學제도에 비하여 교육에 바람직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이후 세계여성대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수준의 학교의 男女共學化를 주장해 오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학의 전면적인 남녀공학화는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며, 남녀공학을 부르짖는 여성문제 전문가들도 대학수준에서만은 남녀공학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우리 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남녀구성상의 제도와 비율로 보아서는 대부분 공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한 총 고등교육기관수는 110개교이며, 그 중에서 남녀공학은 100개교로 91%에 해당하고, 여학교는 10개교로서 전체 대학의 9%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수효만 가지고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에서 남녀공학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간단히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수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 총수에 비하여 여자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수는 6만여명으로 전체 女大

生數의 3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男女共學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소위 남녀공학의 형식을 갖춘 대학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남녀공학이 못 되고 있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女子大學이 분리되어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남녀공학이 엄밀한 의미에서 남녀공학이 못 되는 것은 남녀공학의 의미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다. 남녀공학이 되기 위하여는 (1) 동일한 교수선택 범위에 의하여, (2) 동일한 내용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3) 동일한 과정과 방법으로, (4) 동일한 교육의 장에서 (5) 비슷한 남녀 비율로 구성된 教育場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의 남녀공학 대학들은 몇 가지 조건면에서 참된 의미의 공학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중·고등학교에서의 家政·實科의 차이 때문에 학력고사시험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자유선택에 의하지 않은 性差에 의한 차이에 의하여 선발이 시발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차이는 물론 중등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이지만, 대부분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점이란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 構成比의 문제이다. 대부분 남녀공학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아주 극소수에서 많아야 10~20% 정도이고, 교육대학의 경우는 그 반대 현상으로 남학생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학생 비율이 적은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시되어 본 일이 별로 없으나, 최근 교육대학의 남학생 비율의 저조현상과 여학생의 증가문제는 「教育의 女性化」라는 주제하에 제도적으로 남녀비율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다른 전공분야와 교육분야는 성격상 차이가 있고, 교육대학이 제 2세 교육을 담당한 위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 자신의 교육의 質보다 그들이 실천할 교육의 질이 문제된다는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教育의 女性化」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첫째 女教師에 의한 교육이 남학생을 女性化시켰다는 연구자료나 근거는 아직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sup>3)</sup> 둘째 男教師

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옛날의 초등교육이나 현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에서 남자선생에 의한 여학생의 男性化를 걱정하는 이론은 들어 본 일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의 남학생 저조현상과 여학생 진중현상의 문제는 단순히 敎育의 場의 女性化 理論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현상 뒤에 있는 사회구조적 원인과 女敎師 증가의 문제가 지닌 다른 質的인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한마디로 어느 교육수준에서나 남교사의 압도적 비율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여교사의 증가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여교사의 교사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며, 지식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남성위주사회의 편견적 시각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女子大學의 存立價値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가? 여자대학이 자기 나라에 없거나 있어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면 우리 나라의 女大의 존재 이유를 이상하든 듯이 묻는다. 즉, 왜 아직도 共學化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나의 결론적인 대답은 이렇다. 대학에서도 교육원리상의 궁극목표는 본질상 남녀공학이 바람직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전략상 잠정적이거나 女大는 존립할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첫째, 현재 전체 대학생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여학생수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女子大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모든 대학이 남녀 공동의 경쟁에 의하여 들어간다면, 여학생은 지금만큼의 교육기회도 잃어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量的인 균등을 위한 노력에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즉 아직 전체의  $\frac{1}{3}$  밖에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열세적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여성 보호책으로서의 여학교의 存立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인디안 보호구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인디안을 보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힘을 약화시킨 것과 같이, 女學生만의

別學은 共學보다 다방면의 성장을 약화시킨다는 이론이다. 그렇게 되면 보호책이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反論은 女子大學의 존립이 필요한 두번째 이유와 관련된다. 女子大學은 여학생의 기회균등을 數的으로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敎育의 質的인 면에서도 필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남녀공학대학이 엄밀한 의미에서 共學的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이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리더십의 위치에서는 副次的인 위치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다. 그 예로 학도호국단조직에서 女學生部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남녀공학에서 남녀가 평등이라면 모든 부서에 남녀가 마찬가지로 소속되어 있는데 구태여 女學生部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共學內의 別學的인 의미의 혼합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女學生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女大가 따로 존재하듯이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여학생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부만이 여학생의 리더십을 기르는 것이고 나머지 共學的인 상황에서는 여학생은 언제나 부차적 위치가 되기가 일쑤이다.

뿐만 아니라 남녀공학에서의 일반 敎授의 태도는 여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 하더라도 성장시켜서 재자로 키우려는 의지가 박약한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조교로 채용되는 경우 여학생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차림부름이나 손님접대 중에서 女子가 편리하기 때문이고, 조교 채용 자체가 장차 미래를 보장하는 보살핌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예로 여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共學대학에서 여교수가 자기 학교에 재직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고, 대부분 여자교수는 여자대학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서 키워진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 Ⅲ. 女性高等教育投資의 效果 問題

고등교육은 일반 보통교육이 아니라 전문교육

의 목표에 준해서 생각해야 하므로 여성의 교육 투자 문제도 이 목표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 雇用에 있어서 가장 투자효과가 적은 영역은 고등교육 여성인력의 경우이다. 1982년 현재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취업률은 36%로서 남자의 취업률 95%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1982년도 「勞動統計調查報告」에 의하면 동일 학력을 가진 4년제 대학졸업 여성의 평균초임이 남성임금의 68% 수준이며, 입사 후 4년째에는 57%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임금상의 남녀격차가 격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졸여성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의 28%, 행정관리직의 약 2%를 여성이 점유하고 있다.<sup>4)</sup> 전문기술직이  $\frac{1}{4}$  이상을 차지한 것은 주로 敎職이 차지하고 있는 결과이지만,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대졸여성이 전체의  $\frac{1}{3}$ 에 가깝게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저조한 상태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이제까지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성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확립되지 못한 女性 職業觀

(2) 이러한 태도가 유발하는 女性의 직업에 대한 動機의 弱化和 발달되지 못하는 직업관계 태도와 능력 및 기술의 문제

(3) 여성의 특유한 생활사태와 한국적 문화기대, 즉 직업에서의 능력발휘에 장애조건으로 작용하는 女性의 二重役割構造

(4)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인한 직업사회에서의 여성 기피현상 내지 환영하지 못하는 경향

(5) 리더십 훈련기회 결핍과 전통적인 男性優位 가치관으로 인하여, 행정관리직에 대한 여성의 動機 부족과 일반적인 편견

이같이 고등교육에서의 여성교육 투자 효과 저조현상에 대하여 그동안 대학당국도 뚜렷한 女性教育觀이 없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와 원인들에 대한 치밀한 分析도 없었고, 그것에 기초한 교육전략도 거의 없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수가 약 15만명(1982년 현재)이 넘으며 전체의  $\frac{1}{3}$ 이 되는 지금이야말로

여성의 高等教育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구상할 때라고 본다.

#### Ⅳ. 女性學의 役割

대학교육에서 이러한 여성의 교육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책으로 등장한 것이 교양과정으로서의 女性學(Women Study or Feminology)이다. 여자대학은 물론, 현재 20여개 共學대학에서 女性學을 교양과정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원래 여성학은 1960年代말에 태동하여 1970年代에 본격화된 여성해방운동과 발걸음을 같이하여, 구미제국에서 새로운 각도에서의 학문운동인 동시에 교육내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梨花女子大學校에서 처음 시작한 후 각 대학의 교양과정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공학문 영역으로서 여성학과까지 등장할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女性學의 성격, 내용은 아직도 정립되지 못한 영역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으며,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개선점이 요구된다.

우선 女性學에 대한 대학교수들 사이의 이해의 부족이 심하다. 많은 경우 「모자보건」, 「가정관리」, 「여성과 영양」 식으로 무엇인가 여자들에 대한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家政學 계통과 관련된 지식의 체계를, 즉 전통적인 性役割에 필요한 지식 그 자체만 가지고는 女性學의 내용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女性學이 단순히 女性에 「관한」 知識의 體系이나 하면 그렇지도 않다. 여성문제가 대두되고 女性學이 있기 전에도 女性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컨대, 불교나 기독교의 女性觀이 어떠한가든지, 지능검사나 학력고사에서 女學生의 성적이 저조하다는지 혹은 한국교육사에서 여성의 형식교육기관은 최근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가 등 여성에 관한 지식의 체계는 옛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女性學의 지식의 체계는 단순히 「여

성에게 필요한 것」이나 「여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학의 지식은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의 체계로서 구성된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과 人間化를 촉구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로서, 문제의식은 여성의 현재 상태, 즉 전통적 의식구조나 제한된 역할구조, 불평등의 상황 및 저개발된 문제들을 각 학문 영역에서 탐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나 「여성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구조에 의하여 동원될 때만 여성학의 지식체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등교육 후반기에 와서 여학생의 지능이 남자보다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의 지적만으로는 여성학의 지식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여성에 관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하여 그 원인 규명과 결과들에 대한 연구의 연결이 없으면 女性學的인 문제의식과는 관련 없는 단편적인 데이터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사 속에서 여성을 위한 제도적 교육이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여성교육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현재 여성문화에 주는 영향이라는 문제의식에 연관될 때 비로소 女性學的인 지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女性學은 모든 분야, 즉 사회학, 역사, 심리학, 교육학, 정치학, 경제학, 과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女性의 문제를 탐구하는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이며, 多學間的(multidisciplinary)이고, 間學間的(interdisciplinary) 접근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영역이다. 그리하여 性差心理學, 현대사회 구조와 여성역할의 변화, 법률 속의 여성문제, 직업과 여성문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변천 연구, 문학이나 대중매체에 부각된 남녀관계의 분석, 남녀 역할에 관한 사회문화적 탐구, 새로운 女性像에 대한 종합적 탐구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여성학은 특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人間學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영역의 탐구 양식과 지식의 체계들을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학이 단순히 학문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의식구조를 개혁하고 제한된 역할구조로부터 여성을 해방(libertating) 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잠재력이 性役割(sex-role)의 固定化로 인하여 저해되고 男性과 비교하여 不平等한 人間化 상태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의식과 人間能力에 대한 자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식개발 교육이다.

그러므로 女性學的 강좌는 성격상 한 학문의 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팀 교수방법(team teaching)에 의하여 교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팀의 구성을 어느 정도까지 細分化하느냐는 것과 세분화한 속의 교육내용의 구성은 아직까지 정립된 것이 없고, 각 대학이 자기 人的 자원에 맞게 적당히 구성하고 있고, 분담된 내용간의 관계, 분담된 내용의 구성이 가지는 성격은 전적으로 교수 자신에게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女性學이 일차적으로 女學生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현대사회에게 미래지향적인 여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에서 교양과정으로 채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겠다. 앞에서 논의한 女性高等教育的 문제들은 그것이 기회의 균등이든 교육투자 효과의 문제이든, 결과적으로 여성 자신의 교육의 내적 조건부터 개선해야 하므로 여성문제 해결과 補充的 教育은 女性學과 같은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女性學은 비록 그 이름을 男女兩性的 문제의식이 반영되도록 바꾸더라도 男學生들에게도 교양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女性의 행동변화, 가치변화는 그 對應概念인 男性의 행동변화, 가치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文化的 요소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남성의 변화 없는 여성의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변화이든 상호관계에 있는 남성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女性의 교육투자 효과의 미진상태는 여성의 태도와 능력의 변화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으며, 가정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변인물인 남성의 가치 및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현재와 같이 女性

學을 거의 女學生에게만 부과하고, 사회단체의 의식교육도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은 날로 진보적이 되고, 남성은 보수적이 되어 둘 사이의 의식격차가 점차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文化葛藤 현상을 일으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식의 남녀격차 현상을 증명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女性學이 특히 도입될 필요가 있는 대상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남녀 학생이며, 그 중에서도 女學生들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教育의 女性化」 문제의 실제 이유가 女教師들의 확립되지 못한 職務태도와 능력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교육적 처방은 다른 학과공부보다도 오히려 의

식개발과정인 女性學이 더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教育의 主體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教育기회 균등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도 필요한 교양과정이 될 것이다. \*

<註>

-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실시한 전국 4年制 98개 대학 대상(대학별 기관평가) : 1983년 4월 15일 현재 기준.
- 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자료 : 1983년 4월 15일 현재 기준.
- 3) 1981년 아시아지역 WCOTF(세계교육자 대회)에서도 이 점은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 4) 經濟企劃院, 198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1982.